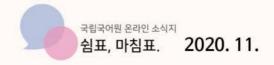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2020. 11.



국립국어원,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문법 범주(6)**표준어 바깥의 세상 **보릿순과 보리싹**실전 띄어쓰기(1) **서로 간의 건강한 거리-'간' 띄어쓰기**국어원 소식 (1) **우리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우리말 다듬기(1) **김 대리,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겸업 현상**말뭉치로 바라보기 **집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1) 실전 띄어쓰기(2) 같은 마음인 걸 안다는 게-'게/걸' 띄어쓰기 우리말 다듬기(2) 탈수록 지구에 힘이 되는 친환경 이동 수단 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어학자와 과학자, 쉬운 말에서 만나다 국어정책 통계 슬기로운 언어 예절 생활



목차

쉼표, 마침표. | 2020. 11.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법 범주(3)

6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1)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보릿순과 보리싹

14 실전 띄어쓰기 서로 간의 건강한 거리-'간' 띄어쓰기

16 같은 마음인 걸 안다는 게-'게/걸'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우리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 국립국어원,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22 국어정책 통계 슬기로운 언어 예절 생활

26 우리말 다듬기 김 대리,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 겸업 현상

28 탈수록 지구에 힘이 되는 친환경 이동 수단



국어로 바라보기

30 말뭉치로 바라보기 집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34 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어학자와 과학자, 쉬운 말에서 만나다



국어로 함께하기

44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48 독자 참여 행사

문법 범주(6)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는 우리말의 문법 범주 관련 용어를 소개하는 마지막 호이다. 앞 호들에서 다룬 문법 범주는 격, 문장(의) 유형, 시제, 상, 양태, 높임법, 겸양법, 피동, 사동이었다. 오늘 열 번째로 다룰 문법 범주는 '부정(否定)'이다.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는 없고, 특정 어휘나 준문법 형태인 보조 용언 구성에 의해 실현된다. 부정이 나타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고, 부정을 문법 범주로 가리키는 용어가 부정법인데, 우리말의 경우 부정이 문법형태소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서 부정법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1) 나는 거기에 갔다.
- (2) 나는 거기에 안 갔다.
- (3)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긍정문인 (1)에 부사 '안'을 사용하여 부정문이 된 것이 (2)이고, 보조 용언 구성인 '-지 않-'을 사용하여 부정문이 된 것이 (3)이다. (2)와 같은 부정 표현은 길이가 짧아서 '짧은(단형) 부정'이라고 부르고 (3)과 같은 부정 표현은 길이가 길어서 '긴(장형) 부정'이라고 부른다. 짧은 부정을 만드는 부사를 '부정 부사'라고 한다. (2)와 (3)의 공통점은 부정 표현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사적 부정이라고 부른다.

- (4) 나는 돈이 없다.
- (5) 그는 천재가 아니다.

(2), (3)과는 달리 (4), (5)에 쓰인 '없다'나 '아니다'는 그 자체로 부정의 뜻을 담고 있는 어휘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 표현을 어휘적 부정이라고 부른다.

- (6) 나는 거기에 못 갔다.
- (7) 나는 거기에 가지 못했다.
- (8) 이 빌딩은 {안 높다, 높지 않다}.

(2)는 '아니'의 준말인 '안', (3)에서는 '아니하다'의 준말인 '않다'가 쓰인 부정문이므로 '안 부정문'이라고 한다. 반면 (6) 과 (7)은 '못'과 '못하다'가 쓰인 부정문이므로 '못 부정문'이라고 한다. '안 부정'은 주로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표현을 '의지/의도 부정'이라고 한다. 반면 '못 부정문'은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능력/상황 부정'이라고 한다. '안 부정'이 의지/의도 부정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8)은 단순히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문장이므로 주체의 의지나 의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을 '단순/중립 부정'이라고 한다.

(9) 너는 거기에 가지 마라.

(9)는 '안 부정'도 아니고 '못 부정'도 아니다. 이처럼 부정적 명령, 곧 금지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 용언 구성인 '-지말다'를 쓰는데, 이를 '말다 부정'이라고 한다. '말다 부정'은 긴 부정의 형식만 있고 짧은 부정의 형식은 없다.

- (10) 그는 돈이 없지 않다.
- (11) 형은 그곳에 안 가지 않았다.

(10)은 어휘적 부정과 통사적 부정이 한 번씩 쓰였고 (11)은 통사적 부정만 두 번 쓰였는데, 아무튼 이처럼 부정 표현이 두 번 쓰인 것을 이중 부정이라고 한다. 이중 부정은 대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 (12) 언니는 결코 그 일을 안 할 것이다.
- (13) *언니는 결코 그 일을 할 것이다.
- (14) 그 책은 결코 전문적이지 않다.
- (15) *그 책은 결코 비전문적이다.

(12)에 쓰인 '결코'는 (13)과 같은 긍정문에서는 쓸 수 없다. 이처럼 부정 표현과만 어울리는 말을 부정 극어라고 한다. '극어(極語)'란 '극단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쓰인다'는 뜻을 담은 용어이다. 부정 극어로는 '전혀, 하나도, 그다지, 아무도' 등 꽤 많은 예가 있다. 부정 극어는 부정문 여부를 가리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15)는 의미가 부정적이지만 (14)와는 달리 부정 극어가 쓰일 수 없으므로 대개 부정문으로 보지 않는다.

(16) 나는 어제 영호와 만나지 않았다.

(16)은 부정하는 대상(내용)이 '나, 어제, 영호, 만남'이 다 될 수 있는 중의적 문장이다. 부정하는 대상(내용)을 가리켜 '부정의 작용역/범위'라고 한다. (16)과 같이 부정의 작용역이 다양하게 파악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부정, 다시 정리해 볼까요?

- · 짧은(단형) 부정: 부정 부사가 용언을 꾸며 주는 부정
- 긴(장형) 부정: 보조 용언 구성을 사용한 부정
- 부정 부사: 짧은 부정을 만드는 부사
- 통사적 부정: 통사적 구성에 의한 부정
- 어희적 부정: 어휘에 의한 부정
- 안 부정: '안'과 '않다'가 쓰인 부정
- 못 부정: '못'과 '못하다'가 쓰인 부정
- 의지/의도 부정: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정
- 능력/상황 부정: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
- 단순/중립 부정: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부정
- 이중 부정: 부정 표현이 두 번 쓰인 것
- 부정 국어: 부정 표현과만 어울리는 말
- 부정의 작용역/범위: 부정하는 대상(내용)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1)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문장의 형성 및 구조와 관련한 여러 문법 용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는 <u>제3회 글</u>에서 '단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어는 '형태소'보다 크거나 같은 문법 단위이므로, 형태론의 최대 단위가 된다. 한편으로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므로 단어는 통사론의 최소 단위가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단어와 문장 사이에 있는 문법 단위들인 '구(句)' 와 '절(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단어나 문장만큼은 아니지만 구와 절 역시 관점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 간략 히 설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에 익숙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필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을 하기로 한다.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단위를 가리킨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포함하면서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단위를 가리킨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포함하려면 두 단어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절이 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술 논문에서는 명사절을 명사구라고 가리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절이 주술 관계를 이루는 특성을 중시하여 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1) 명수는 그 요리를 아주 빨리 만들었다.

(1)은 문장이기도 하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이기도 하다. (1) 속에는 '그 요리'나 '아주 빨리' 등과 같은 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요리'는 명사 '요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므로 명사구, '아주 빨리'는 부사 '빨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므로 부사구라고 한다. 그런데 구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의미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가령 '명수는 그'와 같은 말은 비록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의미 단위는 아니므로 구라고 하지 않는다. 구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몇 호 분량의 글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고쳤어.
- (3) 형이고쳤어.
- (4) 닭장을 고쳤어.
- (5) 형이 닭장을 고쳤어.
- (6) 수선화가 아름답다.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와 그에 따른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는 서술어이다. 그런데 '고치는' 사건은 그 사건을 일으키는 행동의 주체와 대상이 존재해야만 성립된다. 행동의 주체만 나와 있는 (3)과 행동의 대상만 나와 있는 (4)는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없다. 고치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형이 닭장을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서 미리 그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는 맥락이 주어져 있다면, (2)와 같은 말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아무 맥락이 없을 때에는 (2)~(4)를 온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5)는 서술어 '고쳤어'가 구성하는 사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행동의 주체와 대상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나타난 문장이다. 서술어 '고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두 개인 것이다. 이처럼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고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필수 성분을 두 개 요구하면 두 자리서술어라고 한다. (6)에서는 '아름답다'라는 상태를 성립시키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 있다. 그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처럼 주어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아름답다'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 학교 문법에서는 세 자리 서술어까지 언급하고 있다.

(7) 형이 어제 닭장을 혼자 고쳤어.

(7)에서 '어제'와 '혼자'는 더 자세한 설명이 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고치는 사건을 말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이처럼 서술어가 나타내려는 사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데에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을 수의 성분이라고 한다. '수의(隨意)'란 마음에 따른다는 뜻이므로 수의 성분은 상황에 따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학교 문법에서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반드시 필수 성분으로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포함된 단위이므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을 문장이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성립한 문장, 곧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홑문장(단문)이라고 한다. 다음 호에서는 홑문장의 다양한 형식들과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여러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에 관한 문법 용어를 다루도록 하겠다.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 정리해 볼까요?

구: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단위

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포함하면서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단위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필수 성분: 필수적인 문장 성분

수의 성분: 서술어가 나타내려는 사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데에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

홑문장(단문):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표준어 바깥의 세상

보릿순과 보리싹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그때 순옥 언니가 내게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털목도리도 생각난다. 목도리보다는 내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지어주며 다독여주던 그 손길이. 나는 그 목도리를 오래 지니지 못했다. 겨우내 목에서 풀지 않았으나 봄이 오기 전 **{보리순을}** 밟아주러 나갔다가 보리밭 어딘가에 흘리고 돌아왔다. 《신경숙(2011): 세상 끝의 신발》 (남)
- 꽃도 잎도 없이 **{보릿순처럼}** 마디진 풀이 쏙쏙 솟아 풀피리로 불면 애연한 소리가 골을 울릴 듯하다. 《정지용(1948): 문학독본》 (남)
- 달콤한 여인의 입술을 탐하듯 이름처럼 아리따운 **{설아차}** 향기를 입안에서 굴리며 대둔산 기슭을 걸어내려올 때 살찐 꿩 한 마리 푸드득거리며 앞길을 가로질러 날아오른다. 《이근수(2008): 풀잎 외로움 하나에도 고요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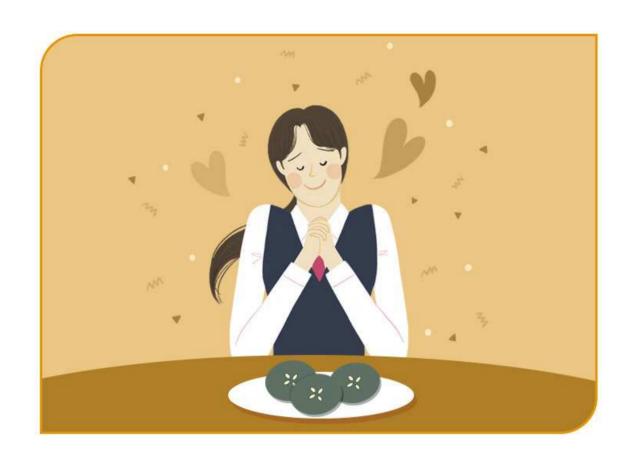
'보릿순' 하면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서 보리밭에 나가 보리밟기를 하던 일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겨우내 들뜬 보리를 밟아 주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 보리 흉년이 든다고 말이다. '보릿순' 혹은 '보리순'은 '심은 보리에서 돋아난 순'을 뜻한다. 그런데 이 말은 남북의 어느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정확한 표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¹⁾ 반면 '보릿순'과 비슷한 뜻의 '보리싹'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과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다. '우리말샘'에는 '보리의 어린 싹'이라는 뜻으로 실려 있고, 《조선말대사전》에는 '심은 보리에서 돋아난 새싹'으로 풀이되어 있다. '보리싹'은 남과 북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사회에서도 그 쓰임이 확인된다.

- 보리는 눈이 이불이라고 눈에 덮인 것을 마당 다지듯 꾹꾹 밟아 주어 아무리 혹독한 바람이라도 **{보리싹과}** 뿌리를 상하지는 못한다. 《이근영(1995): 농우》 (남)
- 파랗게 움트던 **{보리싹이}** 연기에 끄슬리고 빈터만 남은 자리에 몰개바람²⁾이 재가루를 흩날리던 그 35년도 초여름날 아침은 슬픔으로 가득찼던 날이였다. 《박혜탄(1994): 봄의 축복》 (북)
- 해랑강쪽으로 무덤처럼 드문드문 앉아있는 자갈무지와 모래더미우에도 가물에 돋아난 **{보리싹처럼}** 가느다란 풀들이 설피게 돋아나 있었는데 그우로는 나비와 잠자리들이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박철규(1990): 여름밤》 (중국)

여기서는 일단 '보릿순'으로 적는다.
 2) '모래바람'의 사투리.

전라도 지역에서 보릿순은 차의 재료가 된다. '설아차(雪芽茶)'가 그것이다. '설아'는 '눈 속에 피어난 싹' 즉, 보릿순을 말한다. 보릿순은 닭의 먹이로도 쓰인다. 파릇파릇한 보릿순을 베어다가 잘게 썰어서 몽근겨에 버무려 주면 닭에게는 더 없는 영양식이다. 하지만 보릿순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역시 맛난 음식의 재료로 쓰일 때이다. 보릿순을 넣어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고, 쑥개떡처럼 보릿순을 넣어 '보리개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보리앳국'은 전라남도의 '개미'의로 일 컬어지는 음식이다. 보리앳국은 삭힌 홍어애에 보릿순을 넣어 끓인 국으로 아주 구수하고 시원해서 한번 맛 보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물론 홍어를 못 먹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맛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 **{보리앳국이나}** 탕은 술독마저 없앤다. 요산 때문에 당뇨가 감쪽같이 치료된다. (오마이 뉴스(2004, 10, 7.): 홍어향에 고향 생각 절로 나네)(남)
- 또 광주의 자라와 닭으로 만든 용봉탕, 전주천의 천어탕과 흑산도의 **{보릿순}**, 홍어 내장으로 끓인 보릿국도 별미이다. 《한복진(1993): 팔도음식》 (남)
- 시금치, 근대, 무우 시래기 따위를 넣고 끓인 된장국들은 그 푸성귀의 숨이 푹 죽어버려 씹을 게 없는 법인데, 그 된장국 속의 푸른 **{보리순들은}** 살아 있어서 혓바닥에 알맞을 정도의 까끄러움까지 전해주는 그 담백한 감칠 맛이 그만이었다. 《김원우(1994): 탐험가》 (남)

요즘은 보릿국이나 보리개떡을 보기가 힘들다. 배고픔을 반찬 삼아 먹었던 가난한 음식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맛을 즐기는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음식이 아니기도 해서 그럴 것이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남도의 '보리앳국'을 본향에 찾아가 먹어 볼 생각이다. 그때 그 맛이 지금도 그대로일지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남도로 향해 볼 생각이다.

3) '가미(佳味/嘉味)'의 전라남도 사투리로, '맛있는 음식'을 뜻한다.

국어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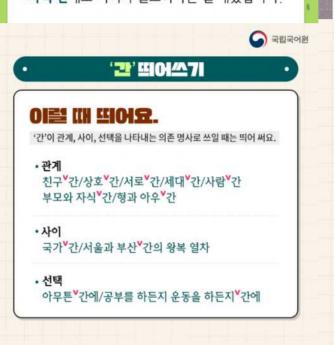
실전 띄어쓰기

서로 간의 건강한 거리 '간' 띄어쓰기











이랄 때 불여요.

'간'이 명사에 붙어 합성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붙여 써요.

- 부부-간/고부-간/부자-간/피차-간/조만-간
- 부부간: 부부 사이 ▶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 그 고부간은 사이가 정말 좋아서 모녀간인 줄 알았어.
-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
- ▶ 부자간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다정하구나.
- 피차간: 양편 서로의 사이 ▶ 피차간의 부족한 점은 이해하며 지내자. 조만간: 앞으로 곧 ▶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간'이 기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일 때도 붙여 써요.

•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수년-간/사흘-간/며칠-간/한 달-간/십 년-간



국어 배우기

실전 띄어쓰기

같은 마음인 걸 안다는 게 '게/걸'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우리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2020년 10월 14일에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우리말 빅데이터의 활용>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 현장에서 전문가 세 명의 발표와 온라인 자유토론으로 구성했다.



▲모두의 말뭉치 첫 화면

문체부와 국어원은 국어 정보화 정책 주관 부서로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당시 2억 어절 규모의 우리말 빅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인공지능 한국어 학습용 언어 자료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한 13종 18억 어절의 우리말 빅데이터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말 빅데이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한국어-외국어 병렬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어원 담당자는 "정부에서 구축해서 제공하는 우리말 빅데이 터가 앞으로 인공지능 및 자동 번역 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우리말 빅데이터의 활용' 온라인 토론회



▲우리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트렌드



▲우리말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서비스 응용



▲우리말과 인공지능

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10월 30일 자연 재난방송에서 제시해야 할 주요 정보를 체계화한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는 2019년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 "자연 재난방송 지침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정희창)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 재난과 관련된 다수의 보도 사례를 수집하여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재난을 '폭염', '태풍 호우 홍수', '지진', '한파 폭설'로 구분하고 보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올해 국립국어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선 방송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침서를 꾸몄다.

| 우선순위 | 정보 유형 | 제시 내용 |
|------|------------------|---|
| 1 | 재난 발생 상황 | 재난 발생지, 재난 발생 시각 등 재난의 생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를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
| 2 | 기상 특보 발효 상황 | 태풍, 호우, 홍수, 한파, 폭설, 폭염 등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자연 재난은 기상 특보 발효 상황을 함께 보도한다. |
| 3 | 사고 및 피해 상황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피해 상황을 보도한다. |
| 4 | 향후 기후 예보 | 자연 재난은 특성상 수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상 예보와 재난의 예상 지속 기간 등을 보도한다. |
| 5 |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 재난 발생 예상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를 보도한다. 지자체나 재난 대응 기관의 대처 정보도 보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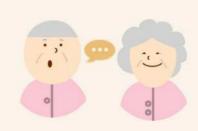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재난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방송사들이 이 지침서를 참고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더욱 부응하는 보도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는 소책자로 제작되어 주요 방송사에 배포될 예정이며,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 조사 자료 > 기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어정책 통계

슬기로운 언어 예절 생활







22

% 슬기로운 언어 예절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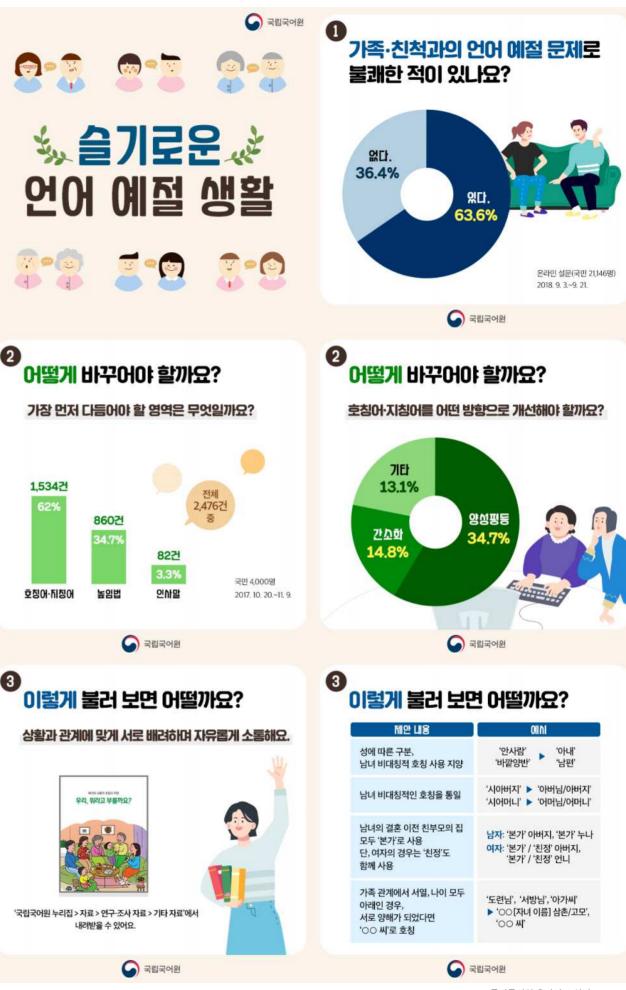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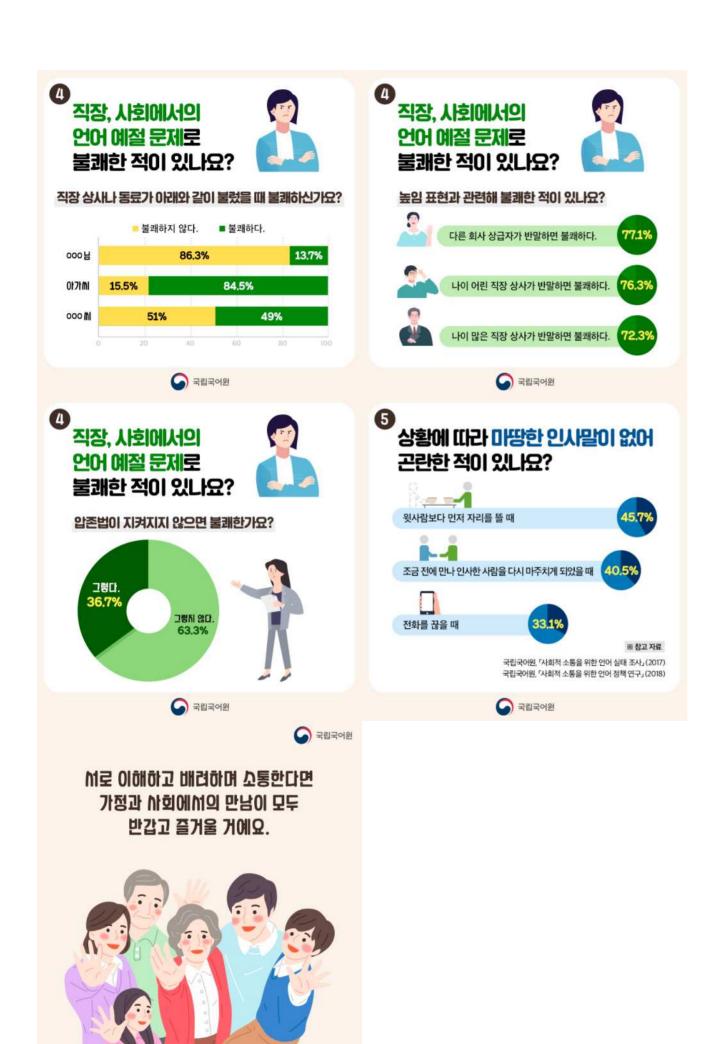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소통하고 있나요? 혹시 호칭·지칭과 관련해 불편했던 적은 없었나요? '언어 예절'은 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 등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점점 가족 형태, 사회 구조 등이 변하거나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하면서 언어 예절도 변하고 있어요. 오늘은 언어 예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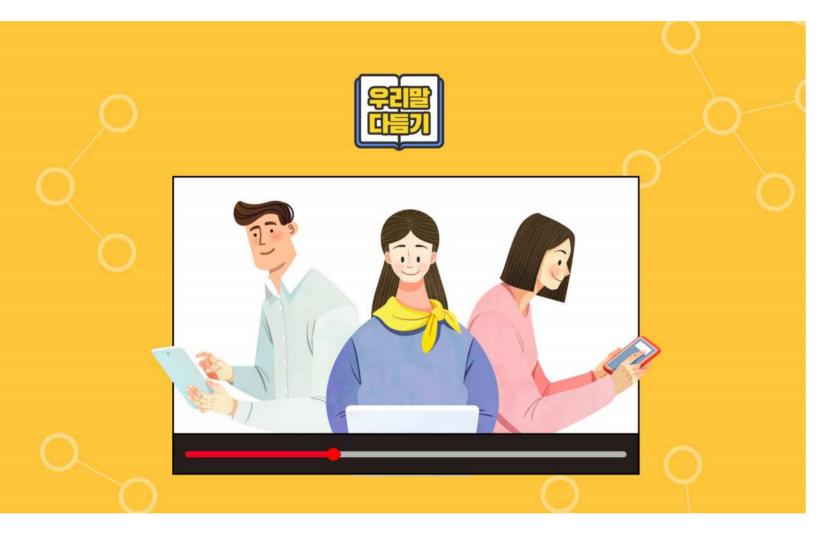




우리말 다듬기

26

김 대리,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 겸업 현상







우리말 다듬기

탈수록 지구에 힘이 되는 친환경 이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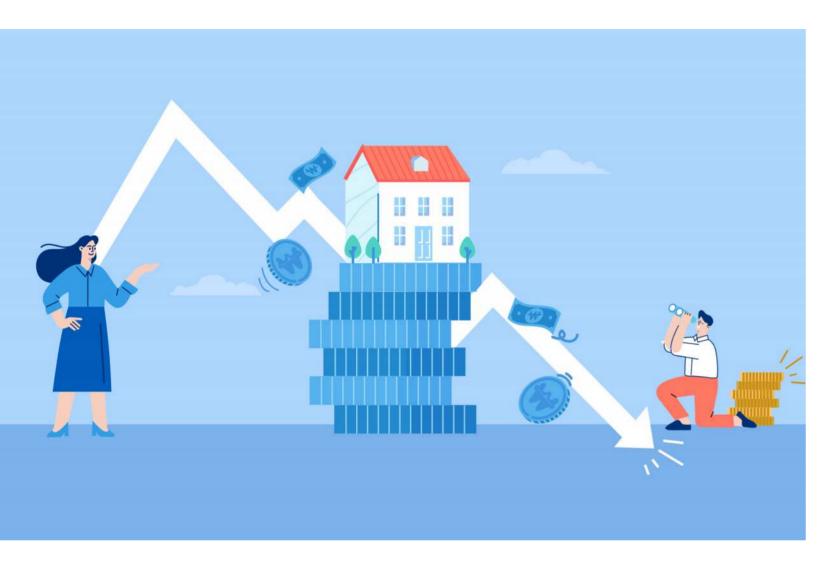




국어로 바라보기

말<mark>뭉치로</mark>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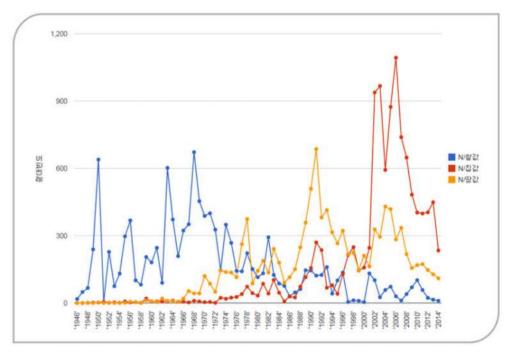
집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 간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2020년 8월 3일자 헤럴드경제에 실린 "서울서 내집 마련, 12년치 월급 다 모아야 가능" 같은 기사는 제목만으로도 소위 '서민'이 서울에서 집을 갖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잘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집 값'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의식주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해 왔을까? 다음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쌀값'⇒'땅값'⇒'집값'



▲<그림 1> '쌀값, 집값, 땅값'의 연도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역사 말뭉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의 사용 빈도는 2000년 이후에 와서야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쌀값', '땅값', '집값' 중에서 '쌀값'이나 '땅값'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몰려 있었다. '쌀값'의 빈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을 테고, 그런 분위기에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1960년대 말에 '쌀값'의 빈도가 최고조를 보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1969년 1월, 정부에서 <쌀값 통제령>을 내린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쌀값 통제령>은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 도시에서 유통되는 쌀의 소매가격을 통제하여, 당시 한 가마에 5,600원까지 오른 쌀값을 5,220원에 묶어 두고자 한 정책이다. 산업화에 매진했던 당시에 쌀값을 안정시켜 저임금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수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1) <쌀값 통제령>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시 경제 구조상 '쌀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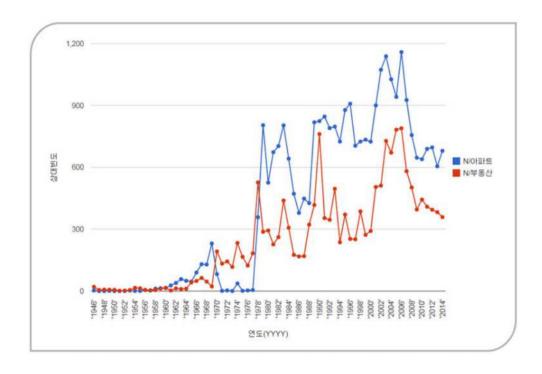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는 '땅값'의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1978년과 1990년에 각각 최고조를 이룬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 '땅값'은 '쌀값', '집값'을 제치고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땅값'은 주로 개발이나 투자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의 빈도가 치솟은 것은 2000년대 초, 즉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남아도는 자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렸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안정성이 높다고 보이는 부동산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 값 상승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집값은 지금도 상승 중이고, 집값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집값'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서 존재하고 있다.

1) 서울경제, 「1969년 쌀값 통제령」, 2017년 1월 24일.

1979년, '아파트'가 '부동산'을 넘다.

같은 집이라도 다 같은 집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연상할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아파트'의 사용 빈도는 어떤 추이를 보일까? 아울러 '부동산'과 '아파트'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



'어파아트, 아파아트' 등으로 표기되던 '아파트'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아파트'로 일관되게 쓰이기 시작한다. '아파트'의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며, 출현 빈도가 급증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에 이르러 '아파트'의 빈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동산'이 '아파트' 추이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부동산'의 빈도를 넘어선다. 이는 부동산 투자의 중심에 아파트가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는 거주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요한 시책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하게 되면 정부는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들어야 했다. 고령화, 저출생, 높은 아파트 가격, 인구의 과밀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파트값이 머지않은 미래에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당분간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서 '아파트'가 생명을 유지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쌀값'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처럼, '집값', '아파트값'도 언젠가는 우리 관심에서 멀어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때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지만 말이다.

국어로 바라보기

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어학자와 과학자, 쉬운 말에서 만나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국어문화원 연합회와 동아사이언스는 '쉬운 의과학용어 찾아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쉬운 의과학용어 찾아 쓰기' 운동은 국어전문가와 과학자가 만나 언론에서 많이 쓰는 어려운 의과학용어를 뽑고,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찾는 사업이다. 각기 다른 분야를 걷다가 쉬운 우리말에서 만난 두 자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당신은 호머 헐버트 박사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쉼표, 마침표.》

두 분 교수님께서는 '쉬운 과학용어 찾아 쓰기' 운동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권재일

제가 한글학회 회장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이런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늘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덕환

저는 대한 화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화학회는 용어라는 말 대신 술어라는 말을 씁니다. 화학회 사업 중 가장 전통적인 사업이 195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전쟁 때부터 시작한 술어 제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30년 가까이 몸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쉬운 과학용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쉼표, 마침표.》

과학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재일

오늘 주제가 과학 전문용어인데요.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의학이면 의학,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사용할 때는 사실 외국어로 된 원어를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도 전문용어가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 전기전자 전문용어를 거의 안 썼는데요. 요즘은 웬만한 용어는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전문용어가 일상생활로 들어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쉽게 쓰지만,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있어요. 그 분야에서 새로 나온 개념, 새로 나온 제품,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요. 특히 의학용어는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의학 전문용어가 어려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방역용어처럼 말이지요. 전기전자 용어라면용어를 몰라 기계를 고장을 낸다든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용어가 되었다면, 보다 쉽게… 쉽더라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듬는 것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환

총론적인 말씀에 저도 권재일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어가 아닌 과학 쪽에서 활동해 온 사람으로 지금까지 느꼈던 소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문용어하고 일반용 어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전기전자나 의학의 예를 드셨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언제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일반어로 넘어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전문용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사회는 발전상황이나 변화의 속도, 사회 구성원 등이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용어와 일반 용어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어냐 외래어냐, 혹은 우리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쉽다는 표현이 애매해요.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다보면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말로 해 달라'는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쉽다는 표현이 애매해요. 익숙한 걸 쉽다고 하는 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용어가, 언어가 등장하고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쉬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개념일지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듣는 사람이 낯설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표현이 아주 어색하거나 하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대체어를 찾을 필요도 있겠지만요.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만이 능사가 된다면 난해한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권재일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 교수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자연과학도 그렇지만 언어학 용어도 보면, 전혀 별개의 개념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성'과 '음 소'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냥 '말소리'로 하면 쉬운 것을 왜 학자들은 어려운 개념을 만들어서 복잡 하게 하느냐고 해요.

심리적인 말소리와 물리적인 말소리는 별개이고, 이걸 구분해서 이해시키는 게 언어학이 일반 대중에게 기여하는 건데, 그걸 난해하니 구분하지 말고 말소리로 하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에서 과학용어를 다듬어야 제대로 다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덕환 명예교수

이덕환

학술 용어에는 그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많은데요. 사람들이 비말이라는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침방울이라고 하자는 말도 많이 들어요. 왜 어려운한자를 쓰는지 답답한 거죠. 하지만 침방울이란 말에는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침의 방울인 거죠. 그리고 비말은 2미터 이상 날아가지 않는 침방울을 뜻해요. 2미터 이상 날아가는 침방울은 아직 이름이 없어서 에어로졸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밀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느냐,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도 전파가가능한 공기감염이냐를 구별하는 핵심이 바로 비말과 에어로졸이거든요. 그런데 에어로졸에 해당하는 말은 못 만들었고, 비말의 뜻은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니까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말하냐는이야기가나오는 거죠.

음소와 음성의 구분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새말을 만들어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 창구가 있어야하는 데, 그 통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쉽고, 모르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건데요. 이게 전문용어에 대한 거부감, 낯섦을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재일

사실은 저도 지금 비말과 에어로졸의 정확한 개념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을 때는 대강 비말은 침을 통해서, 에어로졸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개 념이겠구나 했는데 말이지요. 이덕화 대체적으로 작은 침방을 속에는 바이러스가 많지 않은데요. 2미터 정도까지 날아가는 침방울에는

바이러스가 많아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2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려

면 또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웃음)

코로나가 열 달이 됐는데요. 저도 그 개념을 열 달 만에 처음 정확하게 알았으니, 이것은 전문가와 권재일

언론 모두가 정확한 전문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의과학용어의 문제 해결, 우리 말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해야

《쉼표, 마침표,》

쉬운 의과학용어로 바꾸는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꼭 지적하고 싶은 무 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덕화

제가 하도 고생을 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학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18개의 원소와 수억 개의 부자 이름입니다. 탄소나 질소처럼 우리맠화된 원소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라늄(U)이나 크립 톤(Kr)처럼 우리말로 느껴지지 않는 원소 이름도 있죠. 화학자들조차도 원소 이름이 로마자로 쓰 여 있어 영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국제음성부호'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우리말로 읽는데, 사람들은 자꾸 영어라고 생각하고 영어 사용 화자가 알아듣지 못 한다고 원소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적을 따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우리말로 흡수된 외래어를 원어 화자들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덧씌워지면서 용어를 만드는 과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본은 단백질이란 단어를 가타카나와 한자를 혼용해서 편한 대로 부르고요. 중국은 한자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일 때, 우 리가 수용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꿔놓은 말을 원어민이 알아들 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기준이 돼 있어요.

권재일

선생님 말씀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할 필요 가 없습니다. 에프 발음 표기를 위해 '피읖'에 동그라미를 붙이자고, 한글까지 바꾸자고 주장하는 식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우리말을 하는 데에는 커피라고 해도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중간한 식자들이 일반용어, 전문용어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우선 전제가 돼야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덕화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문용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화학회에서는 이름 때문에 논란을 많이 벌이는데요. 용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궈재일

그건 교육의 잘못인데요. 한글은 우리말에 쓰이는 말소리를 모두 적을 수 있다는 뜻이지. 전 세계 말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 미국에서 영어를 한글로 쓴다면 글자생활 못합니다. 한글로는 영어발음을 다 적을 수 없으니 불가능하지요.

이덕화

그것 때문에 자꾸 영어 화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나옵니다. 발음 자체도 그렇지만 장단이나 강세를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왜 자꾸 안하느냐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어원에서 해 줄 일이 참 많습니다.

권재일

외국어와 외래어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커피나 잉크, 라디오 등은 어원은 외국어지만 사전에 도 실린 우리말 어휘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그대로가 외국어잖아요. 필요하면 외국어 든 외래어든 쓸 수 있지요. 다만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마구 쓰지 말자는 것이지요. 우리말 표현이 얼 마든지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영어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바로 외국어의 범람이지요. 외국어라도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어휘가 없다 하면 받아 쓸 수 있지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말로 녹아든 것도 우리말이지요. 외국어와 외래어 범람이란 표현은 우리말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데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자는 즉, 마구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덕화

'게놈' 이야기를 해 보지요. 게놈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원 어도 합성어예요. GEN와 OME이 합쳐서 게놈인데, 영어에선 지놈이라고 하고 독일어에선 게놈이 라고 해요. 이게 90년대 말쯤 들어올 때, 언론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글 로 게놈이라고 해도 이상하고 지놈이라고 해도 이상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욕이지 전문용어 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어가 진(gene)하고 크로모좀(chromosome) 의 합성어고 발음도 이상하니까. 우리도 유전자하고 염색체하고 합쳐서 유전체로 부르자고요. 프 로테옴처럼 끝에 OME가 붙어서 나가는 이 계열의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유전체라고 정의하면 나 중에 프로테옴은 단백질체로 하면 되고, 그래서 유전체로 가자고 했는데… 결국 한 신문은 지놈이 라고 하고 다른 데는 게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었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생명 공학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유전체라고 하면 격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했 던 거 같아요. 그때쯤 또 하나가 들어온 것이 혼돈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카오스'라는 말 이 있었는데, 카오스 자체는 희랍어고 똑같은 철자로 케이오스라는 영어단어가 있거든요, 영어단 어 케이오스는 진짜 혼란이고요. 희랍어 카오스는 상당히 정교한 물리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 다. 근데 그걸 혼돈이라고 해 버리면 정말 혼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리학에서는 카오스라는 말을 고집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혼돈이라고 써 버리면서 진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영어의 케이오스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게놈과 카오스가 90년대 같은 시 기에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규칙을 만들 때 제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원칙을 주장하면 그 것과 유사한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유연하게 풀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 용어를 만드는데 기준, 법칙을 만들면 발등 찍 는 거더라고요. 꼭 예외가 며칠 내로 나와요. 말 만드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이 해법의 실마리



▲권재일 명예교수

권재일

선생님 말씀에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용어를 정할 때 기준을 세우느냐 유연하게 하 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남북한 외래어 단일화 작업에 참여했을 때 바로 그 문제 를 느꼈어요. '원칙을 정해 놓고 일괄되게 정하자', '아니다 그래선 합의가 잘 안 되니 단어마다 개 별적으로 판단하자' 말이지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일관된 기준도 없이 하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 보니 단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단백질 체, 유전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전체라 하면 격이 떨어져 보이고 게놈이라고 하면 격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의식하는 것이 우리 언어생활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말이지요. 우리말을 쓰면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의식이 우리 언어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배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말을 바르게 다듬을 때 아주 큰 걸림돌이라 할까요. 모든 언어 문제, 특히 외국어나 외래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 상당 부 분 풀릴 문제라고 봐요.

지금처럼 자긍심이 약한 상황에서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가 아닐 까 싶어요. 게놈이든 지놈이든 이를 쓰지 않고 유전체를 쓰는 그런 의식을 과학자나 일반 국민들이 가진다면 전문용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쉼표, 마침표.》

과학자든 국어학자든 한쪽에서만 할 수는 없는 일인 듯합니다.

권재일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오늘 뵙고서 결국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국어 학자들만 해도 어렵고, 전문가들만 해도 어렵고요. 과거 의학용어제정위원회에서 의사선생님들과 국어선생님들이 협업을 했지만, 너무 토박이말로 치우쳐서 수용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결 국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다듬거나 또는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국 어학자가 협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신어, 새로운 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부 소수집단에서 생 겨나서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소수집단언어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단계에 서 국어학자나 전문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 '식감'과 '가 성비'라는 두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사용된 지 1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단어의 사 용빈도를 보면 엄청나게 높아요. 새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는 말 이 되었어요. 이런 새말들이 만들어지면 어휘가 풍부해지잖아요. '가성비'가 우리말에 쓰인 것은 2010년대 이후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새말을 만들어 널 리 쓰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일상용어든 전문용어든 이렇게 우리말로 만들어 널리 쓴다면 훨씬 더 가 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 집행력을 가진 정부부터 시작해야

《쉼표, 마침표.》

쉬운 의과학용어 찾아 쓰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권재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에 편리해야 하잖아요. 그게 언어라는 도구가 가진 생명인데, 비록 그 기원이 토박이말이든 밖에서 들어왔든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에 쓰인다면 모두 우리말이지요. 물론 토박이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써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커피를 토박이말로 새로만들어 쓰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디엔에이(DNA)도 많은 국민들이 쓴다면 그것을 쓰는 것도언어생활의 편리함에 도움이 될 순 있지요.

이덕환

디엔에이와 같은 로마자 축약어도 한겨레 신문은 로마자를 안 쓰고, '디엔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독특한 편집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되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우선 글자 수가 늘어나고요. 굉장히 낯설어요.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런데 영어 화자도 디엔에이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안타까운 부분은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문자를 자유롭게 집어넣어서 쓰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도 가타카나로 쓰지 로마자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국어학이나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퍼센트 같은 기호야 국제적인 기호니까 쓴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권재일

우리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로마자를 그냥 섞어 쓸 수가 없지요. 국어기본법에는 한글로만 쓰고 의미가 불문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규범에 따라쓰면 디엔에이(DNA)이지요. 저희 한글학회에서도 로마자를 섞어 쓰지 않습니다. 눈에는 낯설수도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글자 생활이라는 점에서 선생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이덕환

특히 심각한 게 인문사회계 학술논문의 로마자 인명하고, 이공계 연구 연구계획서예요. 인명을 영어로 쓰는 이유를 물으면 답을 못해요. 이공계 논문은 거의 영어로 쓰는데, 연구 계획서는 어쩔 수없이 한글로 쓰지만 그래도 반 이상이 로마자예요.

문장 속에 로마자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화학회에서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화학자들이 쓴 거보면 기절할 거예요. 한 줄에 로마자가 없는 줄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과학계 뉴스레터에도로마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문제가 한글학회나 국어원이 좀 더고민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운동이라도 벌여야지 않나 싶어요.

권재일

국립국어원도 물론 방향을 정해서 해 나가야겠지만 제일 큰 어려움이 법집행력이 아닐까요? 언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했을 때 그걸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어요. 국어기본법에는 그걸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권고, 계도 밖에 안 되니 한계가 있지요. 결국 행정기관인 국립국어원과 민간기관인 한글학회 같은 학술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 풀어 갈 수밖에 없지요. 물론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외국어투성이잖아요? 전에는 오락프로그램만 그랬는데 요즘은 일반 시사 교양 뉴스까지 말이죠. 전에는 방송뉴스는 적어도 게놈이라고 안하고 '유전체, 즉 게놈'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노출되고 있어요. 신문도 국립국어원하고 언론기관이 모여서 외국어, 외래어를 심의를 하지만 다 지켜지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문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요. 항상 국어 문제와 표현의 자유가 부딪혀서 엉거주춤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우리말을 제대로 쓰고자 하는 쪽도 불만이 있고. 조화를 시키기 쉽지 않지만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쉼표, 마침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과학용어 찾아 쓰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덕환

제가 요즘 줄기차게 외치는 게 '세상은 쉽고 재밌지 않다'입니다. 쉽고 재밌지 않는데, 왜 쉽고 재 밌는 것만 찾을까요. 용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쉽고 재미있는 것 만 찾으면 너무 단순해지고… 어려운 말은 쓰고 싶지 않고 새로운 단어는 보고 싶지 않고, 정말 감 정적이고 표피적인 언어들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런 쪽으로 끌려가면 우리말과 글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어요.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서는 어렵고 재미없더라도 도전하고 극복해 보자 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딱딱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너무거칠잖아요. 힘을 합쳐서 좀 다듬고 멋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권재일

선생님 말씀에 모두 공감합니다. 또 ≪쉼표, 마침표≫ 독자들과 국민들이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품격 있는 언어생활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회가복잡해져서 그런지 말이 갈수록 거칠어져요. 같은 표현이라도 품격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언어 문제에서 언론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큰데요. 언론이국어교과서가되길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정책용어를 생산하는 행정기관들도 정책 이름, 정책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정책의 직접 관련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말글 문제는 우리 국민, 언론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국어전문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우리말 풀기



가을 너머로 성큼성큼 겨울이 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바쁜 일상이지만 《쉼표, 마침표.》를 읽으며 한 해의 끄트머리도 여유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1

'□□'란 '극단적으로 그렇게밖에 안쓰인다'는 뜻을 담은 용어이다. 부정 □□로는 '전혀, 하나도, 그다지, 아무도' 등 꽤 많은 예가 있다. 부정 □□는 부정문 여부를 가리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한 13종 18억 어절의 우리말 빅데이터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 이 이 이 이 이 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우리말빅데이터규모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고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한국어-외국어 병렬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서 국어원소식

문제 3

'□□ □□'은 '멀티 커리어리즘'을 다듬은 말로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직업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해요.

단서 우리말다듬기

문제 4

보릿순을 넣어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고, 쑥개떡처럼 보릿순을 넣어 '보리개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보리앳국'은 전라남도의 '□□'로 일컬어지는 음식이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5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처럼, '집값', '아파트값'도 언젠가는 우리 관심에서 멀어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문제 6

한해두해나이가들어가며부부'□'은물론 부모와자식 '□'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답니다. 가끔은 각자의시간을 보내며 사람과 사람 '□'의거리를 조금은 띄워 두어도 괜찮아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참여 방법

-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1. 3.~2020. 11. 17.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쉼표, 마침표.≫ 12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박*홍(9658) 신*수(9241) 김*경(7297) 조*주(5012) 임*찬(3474) 김*호(2013) 황*선(1393) 김*하(1015) 이*영(1122) 유*철(1114)

우리말 풀기



며칠 전만 해도 아침마다 불던 선선한 바람이 반갑더니
어느새 차가워진 바람에 잠시라도 더 이불 속 포근함을 누리려 꼼지락거리게 되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의 가을이
《쉼표, 마침표.》 독자들에게도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1

이처럼 서술어가 나타내려는 사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데에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을 수의 성분이라고 한다. '□□'란 마음에 따른다는 뜻이므로 수의 성분은 상황에 따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이 지침서는 2019년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
" 이 이 연구에서는 자연 재난과 관련된 다수의 보도 사례를 수집하여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재난을 '폭염', '태풍 호우 홍수', '지진', '한파폭설'로 구분하여 보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단서 국어원소식

문제 3

' 근 그린 모빌리티를 다듬은 말로 전기나 수소 등을 주요 동력으로 하여 기존 내연기관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고 배출 가스가 적은 이동 수단을 말해요.

단서 우리말다듬기

문제 4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에 편리해야 하잖아요. 그게 언어라는 도구가 가진 생명인데, 비록그기원이 '□□□□'이든밖에서 들어왔든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에 쓰인다면 모두 우리말이지요.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1. 17.~2020. 12. 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쉼표, 마침표.≫ 12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박*홍(9658) 신*수(9241) 김*경(7297) 조*주(5012) 임*찬(3474) 김*호(2013) 황*선(1393) 김*하(1015) 이*영(1122) 유*철(1114)